

# [독후감 1]

■ 15기 TMTC 안현민

## 약함의 선교를 읽고

한 선교사의 선교사로서 출발부터 그 과정을 통해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잔잔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 책, 하지만 그 여운은 잔잔하기 보다는 깊이있는 깨달음을 주고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애환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약함으로 선교를 한다고?

이끄는 글에서 미국유학 중 영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담학 공부하는 분이 말더듬는 미국학생을 치유하는 것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강렬하게 와 닿았다.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완전하지 못하기에 학생이 완전하게 완성해 가는데 그것을 돕고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학생이 자기의 약함을 뛰어 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교사로서의 약함, 완전하지 못함! 이것이야말로 선교사로서 떠나는 저자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교사로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선교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선교사들에게 가장 무서운 비자 귀신이라는 비자가 나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출발부터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낯선 이방인으로서 동네 구경거리가 되는 이야기, 언어훈련받는 기간동안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때론 선교후원금이 들어와서 찾으려는데 은행의 속임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야했던 시간들,,, 가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90%나 된다면서도 정작 성당은 일년에 한두번 나가고, 조혼의 풍습으로 일찍 결혼하여 이혼율이 높고 그렇다 보니 깨어진 가정에서 형제간에도 서로 다른 부모를 갖고 있고.. 이런 사회문화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선교를 해야할지 막연하였을텐데도 저자는 그들의 삶속에 뛰어들어가 처음엔 선교사도 인간인지라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평도 나오고 그러다가 부족함을 깨닫고 더 그들을 이해하며 낮아지고 함께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이 땅에 선교사로서 친히 오셔서 복음전파와 말씀의 가르침, 치유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선교의 삶을 사셨듯이, 선교사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종족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종족을 향하여 흠어져 복음을 알리는 삶...

참 쉽지 않은 이 삶을 한 선교사의 삶을 들여다 봄으로써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한 애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독후감 2]

■ 15기 TMTC 안현민

### 선교 매트릭스를 읽고

선교의 본질을 되새기며, 위기의 한국선교를 진단하고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다!! 책 표지의 이 문구는 참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교회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동안 돌이켜보니 선교와 교회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여겼는데, 저자는 선교속에 교회가 포함되었고 선교적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과도 같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위기의 한국선교라고 할 만큼 한국교회에서 예전에는 선교를 안하는 목사님이 손에 꼽히는 숫자였는데, 지금은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손에 꼽히는 숫자라니... 선교보다는 교회의 예배중심을 강조하고 교회를 키우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많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핵심인 선교가 빈약하니 교회의 부흥은 쉽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 선교사의 삶은 또 어떠한가?

저자는 선교사 멤버케어를 언급한다. 이 또한 생소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인간대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고, 내가 느끼기에 그들도 두눈 질끈감고 정말 담대하게 용기있게 선교사로 나아갔으나 선교사도 우리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이 존중받고 위로받고 연약함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는 사실...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선교지에 파송된 사람들로 대표격에 맞는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복지를 받춰줘야 더욱 힘써 안정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는 법 또한 느꼈다. 마치 사사시대에 레위인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제사장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이런저런 요란한 고난을 겪었듯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교사의 안정된 삶을 위한 멤버케어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선교의 재활성화를 위한 본질은 무엇인가? 선교의 바른 동기 회복, 복음자체의 능력의 회복, 무엇보다 바른 영성의 회복을 언급한다. 바른 영성회복을 위해서는 참된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 뜻을 굴복하여 하나님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제국주의적인 선교 돈과 힘과 가진 것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김으로 약함으로 현지인을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 피조물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과 동물등 잘 다스리고 보호하는 관계 등 균형잡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깊은 것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 '자기훈련'이라는 것이다. 선교지가 비록 환경적으로는 한국보다 열악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므로 환경탓보다는 선교사 스스로 자기계발에 대한 의식과 자기관리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교훈련은 고달프지만 선교사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점!

선교에는 많은 훈련을 필요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교회 예배중심에만 갇혀있던 나의 담이 이 선교매트릭스를 통해 선교의 지경까지 확대된 계기가 되었다.